허창수 회장, GS 스마트그리드 격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4월6일 제주도에 있는 GS칼텍스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GS건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GS칼텍스 무수천충전소 등지를 둘러보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허창수 회장의 제주 방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증 단지를 직접 둘러보고 체험함으로써 미래의 녹색성장 기반 확보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허창수 회장은 "그룹의 주력사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신기술은 물론 사업화하고 제휴할 수 있는 제반 핵심역량들을 갖추고 녹색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성과의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GS그룹에서는 GS칼텍스와 GS건설이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T(정보기술)를 접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09>